

이찬진 “스페이스X 사태 재발 방지… 레버리지 상품 재점검”

(금융감독원장)

증권사 해외 공모주 책임 강화
단일종목 레버리지 부작용 우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 속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0주 배정'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과열에 대해서도 “환율 안정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은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0주 배정' 검사…전문투자자 등록·위험고지 점검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사태와 관련해 “당연히 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국내 인수단으로 참여했지만 공모주를 한 주도 배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证권을 통해 청약에 나선 전문투자자들도 공모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 원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주 배정이 안 돼 돈이 다 물려있는 상황이라 매우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검사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현재 미래에셋증권 검사를 통해 전문투자자 등록·운영 절차, 해외투자 위험고지 적정성, 해외 주권사외의 물량배정 관련 의사소통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스페이스X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과장 광고 의혹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운용사가 스페이스X 편입 가능

성을 부각해 투자자를 유인했는지, 지수 방법론을 위반해 스페이스X를 사전에 편입했는지가 쟁점이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은 “과장 광고의 효과 관련해 이번 주수요일 1개 운용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나갈 예정”이라며 “지수 방법론을 위해 ETF를 미리 편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해외 공모주 청약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증권사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사들이 해외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공

개적으로 공유해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사 책임을 강화한다든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IPO 공시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시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나 금융위원회나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리스크 관리 방안 모색

이 원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외국인 투자 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환율 효과는 많지 않고 부작용은 너무 커진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며 “드러누웠어야 했다 후회가 많고 개인적으로 반성 중이다”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구조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손실이 누적되는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매매가 집중될 경우 개인투자자 손실 위험이 커진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92%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고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연속 하락장 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수의

몰이 -37%까지 갔다”고 경고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회전율이 심할 때는 200%대까지 갔다”며 “회전을 130%일 때 증권사 매매 수수료가 5조~1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몸통 시총의 거의 40~70%를 수수료로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투자자들이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미수신용거래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상 위험고지 체계도 함께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원장도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시점과 관련해 “정부 라인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된 최종안은 보고됐다”며 “KB금융지주가 숏리스트 작업을 하는 7월 3일 전에는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KB금융은 현재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회장 승계 절차와 사외이사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금융권 최고 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엔화값 40년만에 최저… 원화가치 흔들리나

엔·달러 환율, 증가 평균 157.98엔
원화 동조 경향… 약세 전망 커져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을 목전에 두며 ‘플라자합의’ 이후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리차가 여전히 여전하고, 일본에서 돈을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수요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원화값은 엔화값과 동조하는 경향이 큰 만큼 엔화값 하락이 원화값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투자정보사이트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뉴욕 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지난 19일 달러당 161.28엔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엔·달러 환율의 증가 평균도 달러당 160.32엔을 기록해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60엔 선을 넘었다.

특히 올해 들어 엔·달러 환율의 증가 평균은 달러당 157.98엔에 달했다. 이는 ‘초엔저’가 한창이었던 2024년의 달러당 151.48엔보다 약 4.2%나 높은 수치로 ‘플라자합의’의 영향이 본격화한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엔화값 최저)다.

◆日 금리인상에도 ‘엔화 약세’ 지속

미·일 기준금리차가 5.5%p까지 벌어지면서 엔화값이 급락하자 일본은행은 지난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 선언을 선포하고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다. 당시 달러당 160엔 선을 위협하던 엔·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엔 중반까지 하락(엔화값 상승)했다.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의 종료 선언 이후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했다. 일본은행은 이달 16일까지 총 4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의 현재 일본은행의 정책금리(기준금리)는 1.0%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 3.75%와 비교해 2.75%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와 달러화를 취급하고 있다. /뉴스1

낮다. 이는 코로나19 직후의 5.5%p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의 엔·달러 환율은 오히려 심리적 저항선인 160엔을 넘기며 엔화 약세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엔화의 약세가 심화한 것은 연준이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중단하고 기준금리 재인상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도 엔화값이 약세에 놓인 요인이다. ‘엔 캐리 트레이드’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엔화를 팔고 타국 통화를 매수하는 과정은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중동사태’ 종료 전망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는 ‘엔 캐리 트레이드’ 수요를 빠르게 늘렸다.

엔화 약세는 원화 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엔화는 원화, 홍콩달러, 대만달러 등 동아시아 통화와 한 권역으로 묶여 취급되며, 한국은 일본과 수출 및 사업 구조가 유사한 만큼 원화값은 다른 통화보다 엔화값을 추종하는 경향이 특히 크다. 최근

원화 약세가 빠르게 심화하는 과정에서 엔화 약세의 영향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엔화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일 기준금리차가 여전히 높아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여전히 높고, 단기간 내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차가 좁혀질 가능성도 크지 않아서다.

투자회사 노무라증권의 마쓰자와 나카 수석전략가는 “일본은행이 긴축에 나서더라도 미국 국제 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엔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전략이다”라며 “다가이치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도 일본은행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일본의 성장률이 소폭 호전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인 만큼, 엔·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 하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한국전력,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요인 최소화·전력비 절감 최선”

한국전력이 올여름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주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으로 동결 기조를 이어나가게 됐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변수 중 하나인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 최대치인 ‘+5원’을 유지하게 됐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석유·가스 수입 가격의 흐름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항목이 바로 ‘연료비조정단가’다.

최근 3개월간의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산정된 3분기 실적연료비는 기존 기준연료비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할 때 투입된 연료량 등을 환산해 계산한 결과, 이론적으로는 kWh당 약 3.4원을 내려야 하는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은 최종 동결을 선택했다. 한전이 올해 1분기 기준 매출액 24조 3985억 원, 영업이익 3조 7842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적 부채가 206조 원, 차입금이 128조 원에 달하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하하기에는 구조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분석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동결 발표는 연료비 조정요금에 한정된 것이며, 나머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바가 없다”며 “인상요인 최소화와 전력비 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미세공정 넘어 첨단패키징… 승부처 이동

>> 1면 ‘삼성·인텔 추격전?’서 계속

더욱이 승부처가 단순 미세공정 경쟁에서 첨단 패키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TSMC는 CoWoS·SoIC·CoPoS 등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GPU당 탑재 가능한 HBM 용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AI 반도체 경쟁의 핵심이 GPU 출하량보다 GPU당 HBM 탑재량 증가로 이동하면서, TSMC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파운드리 사업은 막대한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분야라 미국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쉽지 않은 만큼,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당장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TSMC는 오랜 기간 축적한 생산 경험과 높은 수율, 고객 생태계 등에서 강점이 있어 단기간에 경쟁 구도가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